

## 한국 개신교 기도 전통과 기독교교육

권진구(목원대학교/조교수)

daniel1978@mokwon.ac.kr

### 한글 초록

1880년대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이후 한국 개신교는 양적 성장에 이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신학, 목회, 사회 참여, 윤리, 교육, 상담, 역사, 영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도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와 신앙에 있어 중요한 영적 자원이자 방법이였다.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에 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연구가 지속하고 있고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개신교의 변화와 기도 교육을 위해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을 정리해 그 의의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의 특징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교회와 기독교교육에 있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한다. 또한, 한국 개신교에 특정한 기도의 요소가 자리 잡게 된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하고 최근 다루어지는 주제와의 관계를 서술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이 기독교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 등을 연구하고 고찰할 때 새롭게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신교 초기 기도의 교육적 요소와 비교육적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개신교 기도전통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전체 역사와 전통의 관점에서 기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 주제어 》

개신교, 기도, 통성기도, 묵상, 기독교교육

## I. 들어가는 말

한국 개신교는 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목회와 사회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기초를 놓았고 한국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세워지고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교회, 성도, 사회, 국가의 재건과 성장, 변화에 이바지했다. 한국 개신교는 이후 빠른 성장을 겪으면서 교회가 갖고 있던 인적, 문화적, 목회적, 신학적, 사회적 자원으로 는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와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한국 개신교의 변화 과정은 양적 성장이 먼저 도래하고 질적 성장이 뒤따르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질적 성장은 신학, 목회, 사회 참여, 윤리,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기도에 관한 신학, 이론, 실습, 실험, 변화 등도 포함된다.

기도는 지난 130년 이상 기간 한국 개신교에 있어 중요한 영적 방편이자 자원으로 인식되었고 시대와 세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선교 초기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시편을 포함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육되었고 이는 교회 예전에 적용되었다. 개신교 교회가 한반도 곳곳에 세워지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도도 차츰 한국인의 문화, 정서, 상황, 신앙을 반영하게 되었다.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등이 한국 성도의 신앙에 의해 행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는 부르짖음과 눈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으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열중하기도 했다. 한국 교회의 기도는 신앙의 선조들에게서 현재 성도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고 한국 개신교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기도들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의 질적 성장과 기도 교육을 위해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을 정리해 그 의의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의 특징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 교회와 기독교교육에 있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한다. 한국 개신교에서 기도와 관련해 지속해 논의되어온 주제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기도 등이 있고 비교적 최근에 부상한 주제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에 특정한 기도의 요소가 자리 잡게 된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하고 최근 다루어지는 주제와의 관계를 서술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독교교육에 있어 한국 개신교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향후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 등을 연구하고 고찰할 때 새롭게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제안한다. 본문은 한국 개신교에서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의 기원과 배경을 시작으로 역사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분명한 의의가 관찰되는 방언, 묵상, 관상을 차례로 연구하면서 각 기도 속 요소와 기도 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연구의 후반부에는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교육에 적용하는 데 어떤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제안한다.

## II. 개신교 기도전통과 기독교교육

### 1. 통성기도

한국 개신교의 기도전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기도는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이다. 이 중 통성기도는 한국 개신교 전통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덕주 교수(2005)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선교사들은 통성기도를 United Audible Prayer, Prayer of Unison 등으로 불렀다. 게일(J. S. Gale, 1909)은 United Audible Prayer로 적고 있고, 한국인으로서 처음 통성기도를 영어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백낙준(1927)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Prayer in Unison이라고 적고 있다.

성도가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은 천주교나 개신교 모두에 자연스러운 기도의 형태였다. 개신교 초기 선교 당시 천주교에서는 미사 시 또는 기도할 때 회중이 함께 적당한 음성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행해왔다(Gifford, 1898, 182-183.). 개신교에서는 초기부터 주기도문이 교육되었는데 함께 소리를 내는 기도였다. 릴리아스 언더우드(L. H. Underwood, 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에서 많은 한국인 성도와 함께 드린 예배 중 한목소리로(In Concert) 경건하게(Reverently)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감정의 고조(Thrilling)가 있었다는 경험을 적고 있다. 초기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한국 성도들과 기도회를 자주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 말씀이나 찬양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 경우에도 묵도나 침묵을 지키는 형태로만 기도했다기보다 모임의 성격에 적절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초기 한국 개신교에서 사경회와 부흥회는 선교와 신앙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통성기도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경회와 부흥회에서 기도는 중요한 요소였고 선교사나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은 성도의 기도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경회와 부흥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당시 조선의 백성에게 성경의 내용은 그 자체로 의식과 삶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었다. 릴리아스 언더우드(1918)가 전하는 개신교 첫 번째 세례인 노 씨(Mr. No 또는 노춘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의 예를 보여준다. 노 씨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목이 잘린 많은 사람을 보았고 기독교가 매우 나쁜(Very Vile) 종교라 배웠음에도 남몰래 관심을 두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알렌(H. N. Allen) 박사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 밤낮으로 읽게 된다.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Gripped) 성경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변화 받게 된다. 당시 기독교인이 되어 세례를 받는 것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음에도 언더우드(H. G. Underwood) 선교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비밀리에 세례를 받는다. 언더우드는 노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한국에 빛이 되사 한국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깨닫게 된다.

사경회와 관련된 계일의 이야기는 한국 개신교의 기도 형성에 있어 부르짖는 요소에 대한 한 관점을 제시한다. 계일은 그가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인 1898년 발행된 『Korea Sketches』의 “몇 명의 특별한 친구들(Some Special Friends)”이라는 장(章)에서 김 영감(Old Kim)에 관해 쓰고 있다. 김 영감은 계일의 사경회에 참석했고 처음에는 말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후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다. 계일(1898)은 김 영감이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Prayed So Loud)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표현했고, 또 한번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 들도록 기도하고 외쳤다(Prayed and Shouted So Loud)고 썼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은 김 영감의 이야기에 서와같이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이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의 열의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다. 이러한 회심과 체험 가운데 성도는 기쁨, 감사, 슬픔, 후회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김 영감 이야기는 통성기도가 아직 그 형태를 갖추기 전에 성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비밀리에 세례를 받은 노춘경과 큰 소리로 신앙을 표현한 김 영감에 관한 이야기가 부르짖는 요소를 두고 대비되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개신교가 경험하고 있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가 죽임을 당한 병인박해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불과 십여 년 전의 일이었다고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려면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고 느끼는 때였다. 초기 선교사들의 사업은 의료와 교육 등으로 제한되었고 종종 선교사나 이들을 돕는 한국 성도와 관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1895년을 전후로 동학운동,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 등 국내외의 큰 역사적

사건이 있어 개신교 선교사와 성도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개신교 선교에서 첫 십여 년은 언어, 조직, 인적 자원, 문화적 차이 등을 해결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또한, 당시 주택이나 건물은 서양식으로 지어지기 전이어서 소음이 외부로 전달되기 쉬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자면 노준경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된 김 영감도 자신과 마을 사람 모두가 처했던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통성기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요소는 기존 종교의 영향, 한국적 정서로 이해되는 한(恨),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국내외 정세 등과 관련해 그 발생을 해석하기도 한다(김명실, 2010, 299-335; 배정도, 2009, 204-205; 조성호, 2020, 217-272). 이러한 해석은 통성기도가 형성되는데 여러 요소가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특정 요인만이 부르짖는 요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 집단, 요소의 복합적인 결과가 당시 기독교를 새롭게 접한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부르짖음에는 절박함, 한, 후회, 기쁨, 감사가 함께 존재한다.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확신과 불안이 교차한다. 막연한 답답함에 외치기도 하며 외쳐야 할 대상이 명확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한다. 부르짖음의 요소는 감정, 이성, 상황, 정서가 함께 표출되는 창구이자 의사 표현과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함께 외친다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한다. 누가 먼저 소리쳤는지 누가 더 큰 소리로 외쳤는지 알기 어렵다. 신념의 확인, 감정의 공감, 상황의 공유, 불안의 해소, 정서적 일치하는 함께 부르짖게 되는 이유로 작동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한 요인이 부르짖음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함께 기도하는 요소는 개신교 예배, 세례, 사경회, 기도회 등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고 보인다.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기도회가 자주 등장한다. 릴리아스 언더우드(1904)의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에는 주기도, 금식기도, 사경회와 기도, 치유를 위한 기도, 찬양과

기도, 철야기도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주기도문을 비롯하여 합심하여(United in Prayers) 기도하거나 합동기도(United Prayer)를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1900년에 열린 감리교 제16차 연회의 보고서에는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맡고 있던 의사 메리 커틀러(Cutler)의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커틀러 박사는 기독교 봉사자들에게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환자, 문지기, 관리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Korea Mission, 1900, 66-70).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한 전도부인(Bible Woman)이 있으며,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있고,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읽고 쓰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고 있다. 이 연회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는 금식과 기도, 기도회, 찬양과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주의 기도 등도 언급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어 교육과정 3년 차에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orea Mission, 1900, 90). 주일 예배와 함께 사경회와 기도회는 정기적인 모임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갖는 비정기 모임으로 선교사와 한국 성도가 함께 참여했다. 선교사들이 언어 문제를 극복하고 함께 한국어로 기도할 수 있게 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등을 한목소리로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즉흥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요소가 더해지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고 보인다.

학자들이 통성기도의 발생을 논하면서 공통으로 언급하는 사건은 20세기 초 원산과 평양 등지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번져나간 한국 개신교 부흥이다(김명실, 2010; 이덕주, 2005). 1903년 원산과 1907년 평양의 부흥은 그 이전에 선교사와 한국 성도에 의해 이어져 온 선교, 전도, 예배, 사경회, 기도회 등의 결과가 축적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선교사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1900년대 초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부흥의 싹이 트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장로교 여성 해외 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에서 발행하는 『Woman's Work for Woman』의 편집자였던 파슨스(Ellen C. Parsons)가 선교사들로부터 수

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모은 『Fifteen Years in the Korea Mission』에는 기퍼드(Mary H. Gifford)여사와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전한 믿음, 회개, 눈물의 이야기가 전해진다(Parsons, 1900, 18-19). 기퍼드 여사는 주일에 가게의 문을 닫게 되면 한국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 두려움에 가게를 열었지만, 곧 회개하고 이제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한다. 언더우드는 모임 중에 한 남자가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어 온 회중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듯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전한다.

아펜젤러(Appenzeller, 1902)는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마지막 부분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심(Zeal of Converts)을 서술한다. 아펜젤러는 한국 교회를 유아기의 교회(Infant Church)라고 하면서 이들의 열정이 한국과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고 썼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지인, 친구,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아낌없이 즐겁게(Liberally and Cheerfully)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 한국 성도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More and More) 열심을 내는데 겨울이건 여름이건,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서당에서도 주막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 한국 성도들은 학대(Abuse), 외면(Ostracism), 비웃음(Mocking), 구금(Imprisonment)을 참아내며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1900년대 초 한국 교회의 부흥을 통해 통성기도가 한국 교회의 기도로 발전한 것은 부흥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긍정해야 하는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한국적 정서, 종교와 문화, 사회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한국 성도들을 변화시켜 통성기도를 만들어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성기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과연 한국 교회에 교회 교육에 있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맞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뒤따르는 내용과 연관해 후반부에 서술하도록 한다.

## 2.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통성기도와 함께 한국 교회 초기부터 형성되고 이어져 오는 한국 교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새벽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 주장이 존재한다. 새벽기도에 관한 연구 중 이덕주(1998; 2005)는 1903년에서 1910년을 새벽기도가 발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시기로 본다. 이 기간 이화학당과 평양의 장대현교회 등에서 새벽기도가 있었고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 개신교 부흥이 새벽기도를 확산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덕주는 길선주와 박치록의 영향으로 1906년 장대현 교회에서 교회 단위의 정기적 집회로 새벽기도가 자리 잡게 되었고 한국의 무속과 도교의 종교문화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본다. 박아론(2010; 2021)은 두 권의 저서에서 1906년을 새벽기도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한국 개신교 부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육성득(2006)도 새벽기도를 정착시킨 길선주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조한다. 그러나 육성득은 이덕주보다 새벽기도의 기원을 더 이른 시점으로 잡고 장대현교회의 새벽기도는 더 늦은 시점이라고 본다. 1898년 황해도 수안의 강진교회 사경회에서 새벽기도가 처음 시작되었고 1904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공식적인 순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육성득은 이화학당의 새벽기도가 자생적이었으며, 1909년에 이르러 장대현교회에서 500명이 넘는 성도가 두 달에 걸쳐 새벽 기도회를 지속했다고 적고 있다. 이 연구에서 육성득은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가 한국인이 시작해 자발적 특징을 갖고, 전통 종교에 이미 존재하던 새벽기도 형태를 기독교화했기에 토착적 기도운동이라 본다. 더불어, 전도와 애국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한국 개신교 새벽기도의 민족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은 토착 종교의 새벽기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토착 종교와 관련성이 큰 대중교가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을 생각할 때 토착 종교에 공공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육성득(2016)은 이후 자신의 저서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에서

새벽기도의 발생에 있어 무속 신앙의 영향을 부정하고 도쿄에서 개종한 길선주와 동료들이 사경회에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옥성득이 새벽기도에 대한 무속적 영향을 제외하는 것은 새벽기도와 무속의 연관성을 언급한 증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조선 시대 통금의 해제를 알리는 파루가 새벽 시간을 기독교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또한, 그는 1919년 이전 매일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없었다고 보고 1920년대 후반 식민지 상황이 새벽기도를 활성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윤은석(2018)의 연구도 1920년 이전 매일 새벽기도를 행한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은석은 1920년 이후 새벽기도가 확산하고 정착되는 이유로 부흥사경회, 선교사들의 아침기도, 신유의 역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박용규(2012)의 연구는 평양 부흥 이후 새벽기도가 정착된 것이 맞지만, 1920년 이전 매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없었다는 옥성득의 연구와는 다르게 1910년과 1911년에도 한국 교회에서 새벽기도가 계속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박용규가 지목한 『Korea Mission Field』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1909년 11월에는 평양에서 길선주가 시작한 새벽기도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된다. 1910년 12월 기록에는 황해도 재령에 있던 황호리(Henry C. Whiting) 박사가 5시에서 5시 30분에 아침기도(Morning Prayer)에 참석했으며, 하루 중 최고의 모임(Best Meeting)이 바로 이른 기도회(Early Prayer Meeting)라고 쓰고 있다. 1911년 4월 기록은 서두에 'Eul Yul, Korea'라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황해도 은율군에 있던 선교사의 기록이라 짐작된다. 이 선교사는 장대현 교회에서의 새벽기도(Sun-Rise Meetings) 경험과 이후 자신의 맡았던 교회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에 따라 1920년 이전에도 새벽기도를 정기적으로 행한 교회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말테(2012)의 연구는 초기 선교사와 한국 개신교인의 새벽 기도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1880년에서 1891년 사이 백홍준, 1890년 모팻(Samuel

A. Moffett), 1892년에서 1896년 사이 신학반 참여자들, 모팻과 한석진, 이후 1886년부터 1901년 사이 길선주, 강진 사경회, 황해도 사경회, 초산의 한국 성도들, 1903년의 원산의 하디와 평양 선교구역의 사경회, 1904년 이화학당 여학생들, 1905년 송도 사경회, 1909년 장대현교회의 길선주와 박치록까지 한국 초기 개신교 역사 속 기록되었거나 전해지는 새벽기도를 가능한 한 모두 찾아 정리해 놓았다. 이말테는 새벽기도가 1903년 시작되어 1907년 절정을 맞은 한국 개신교 부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속적 요인이 개신교 새벽기도의 기원이 아니고 길선주도 시작점이 아니라고 본다. 이말테는 모팻이 가장 이른 시점인 1890년 9월에 새벽기도를 시작했을 수 있고, 연도상으로 가장 이른 새벽기도 7회 중 다섯 번이나 참석한 것을 들어 새벽기도를 시작한 인물로 그를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이말테(2014)는 다른 연구에서 개신교에 앞서 천주교인들이 실천했던 새벽기도의 예를 들어 개신교 새벽기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옥성득과 이말테는 개신교의 새벽기도와 무속의 기도나 관습이 관계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초기 개신교인들이 무속의 기도나 관습에 따라 기도했다는 기록은 존재하기 어렵다. 선교사들은 그들의 보고서나 일기 등 기록에서 무속을 본국의 성도들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극복해야 할 대상이나 선교의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윤은석, 2018, 181-221).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무속과 관계되어 발생하거나 발전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나 본국에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덕주(2005)의 논문에서 성미와 연등의 사용에 관한 연구는 한국 교회가 무속이나 기존 종교적 관습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성미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교회에는 없던 한국 개신교회의 새로운 모습이다. 거룩성과 정통성을 기존의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찾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 개신교만의 새롭고 독특한 신앙 행위이기에 성미는 오히려 본보기가 될만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설령 통성기도, 새벽기도 등과 무속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선교사의 기록이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속의 흔적은 개신교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된다. 예를 들어, 한국 개신교의 성미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축귀, 예언, 입신, 치유 등의 능력, 헌금한 성도의 감사나 간구의 내용을 대중 앞에서 읽고 축복하는 모습, 사업을 시작할 때나 자동차를 구매한 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받고 목회자에게 사례하는 관습, 산 기도의 성행, 수험생들을 위한 백일기도 등 과거와 현재의 여러 예를 통해 알 수 있다(이대근, 214, 267-501). 길선주가 몸담았던 도교가 조선 시대에 민간 신앙 또는 무속의 영향을 받은 점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옥성득이 언급하는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파루에도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69-85). 파루 소리에 맞춰 일어난 것은 파루가 일종의 자명종의 역할을 한 것인지 새벽기도의 이유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파루를 울리는 종이나 북은 밤새 그치지 않고 시시때때로 시간을 알리는 역할도 했으며, 도성 외각에서는 듣기 쉽지 않았다. 이말테나 박용규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파루가 없는 일반 군현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새벽기도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파루가 새벽 시간을 기독교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새벽기도는 선교사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그들이 보인 기도의 모범, 한국 성도의 신앙,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새벽기도가 무속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생활양식, 정서 등에 의한 문화적 부분일 뿐이지 그 이상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새벽 문화에 익숙한 것은 농경 문화와 밤을 밝혀줄 조명의 상대적 부재가 한 이유일 것이고, 무속, 불교, 유교 등 전통 종교를 실천했던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새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배, 기도, 찬양의 대상을 바꾸어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또는 소규모의 성도가 모여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장소, 시간, 안전, 조명,

소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 여성들의 열심과 교회 내 비율을 고려할 때 남성들이 여성보다 자주 새벽기도의 기원에 등장하는 것은 안전이 한 이유일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하게 한다. 아펜젤러(1902)는 한국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다양한 장소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추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Where the Women Are Secure from Molestation)라는 표현을 적고 있다. 언더우드(1908)는 여성의 상황(Condition of Women)을 염려하고 있고 도덕적 상태(Moral State)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여성의 경우 학교나 사경회 등 이미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새벽기도가 수월했을 것이고, 원거리를 밤이나 새벽에 이동한다는 것은 당시 자연환경, 주거환경, 이동 수단, 사회적 상황에서 널리 행해지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다. 어두운 시간 교회에 모여 새벽기도를 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전기와 조명시설이 부족했던 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1900년이 되어서야 최초의 민간 전기 조명이 밝혀졌고, 점차 안전과 이동 환경을 개선해주어 새벽기도의 확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옥성득이나 유은호의 연구는 새벽기도가 확산하는 시기를 192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가정의 전등 보급률이 98%를 넘게 되고 서울 전체로는 44.1%에 이르게 된다(오선실, 2020, 170-171). 전국적으로는 2% 수준에 머무른다. 사경회나 부흥회 등 한국 성도들의 초기 신앙의 양태로 보아 여러 장애물이 없었다면 새벽기도는 더 빨리 확산하였을 것이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 동트기 전이나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헌신, 복종, 자기 부인, 찬양, 간구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회로 확대되었다는 보편성과 많은 교회가 새벽기도를 지속하고 강조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특수성이 다른 기독교 공동체, 지역, 문화, 역사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이며 새벽기도를 한국 기도전통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다.

현재 한국개신교회가 상기해야 할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의 의의는 이러한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성도의 믿음에서부터 발생했다는 점이다. 세계의 많은 종교에서 부르짖는 기도나 이른 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종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 초월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 교회가 확장되어 가던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는 교부들과 순교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되고 존경받는 것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거나 정통 신학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 성도들도 다르지 않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의 응답이 있다. 한국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었고, 가난했고,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고, 무속이나 유교나 불교의 문화와 정서에 익숙했으며,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몰랐지만, 어느 시대의 기독교인들만큼 혹은 그 이상 순수하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께 한결같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가 한국 개신교의 전통으로 세계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일 것이다. 한국의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는 한국기독교 역사에서 잊히지 않고 이야기될 것이고 한국 개신교의 신앙과 부흥의 상징으로 오랜 시간 남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철야기도 역시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에 포함되어야 한다. 철야기도는 한국 성도의 신앙이 반영된 믿음의 유산이고 교회와 성도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만큼 자주 행해지기 어려운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철야기도를 실천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방언, 묵상, 관상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개신교회의 관상기도에 관한 관심이 의미하는 점을 논하도록 한다. 방언은 한국 개신교 모든 교단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기도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지만, 방언의 역사적 의의, 영향력, 논란 등을 고

려할 때 개신교 기도전통에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3. 방언과 묵상

한국전쟁 이후 한국 개신교 기도 중 방언과 묵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주목받는다. 방언은 부르짖는 요소나 새벽 시간의 기도와 같이 한국 개신교 초기에 나타나 확산한 기도의 요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령론, 방언, 성령세례 등의 주제를 연구해온 배본철(2006) 역시 1900년 이전에는 한국 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기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의 아들 리처드 베어드(Richard H. Baird)가 1907년의 평양 부흥에 대해 회상하면서 방언이 약간 있었고 언더우드, 마펫, 베어드는 이를 중단시켰다고 언급한다(박용규, 2012, 124). 그러나 리처드 베어드는 당시 10세 정도밖에 안 되었고 그가 아버지를 회상하며 쓴 책인 『William M. Baird: A Profile』은 1968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록과 비교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선교사나 한국 목회자와 성도의 기록에도 방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1900년 초 부흥 당시 방언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배본철(2006)은 1903년 이후 방언은 선교사에 의해 묘사된 적이 있지만, 교리적 입장에 의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을 것이라 본다. 오순절을 한반도에 최초로 전파한 선교사 럼시(Mary C. Rumsey)는 1920년 후반이 되어서야 일본과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일본에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음을 미국에 보고했다(이창승, 2019, 246-247; 박명수, 2003, 233). 성결교단 부흥 운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이명직이 『聖神[성신]을 받으면 方言[방언]을 하나뇨』를 쓴 것이 1930년이다. 이 글에서 그는 방언을 외국어와 천사의 말로 구분하여 성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자면, 한국 교회에서 방언이 기도의 요소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을 전후한 때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박성산과 광봉조 등과 같은 인물에 의해 오순절 교회와 방언이 1950년대까지 이어지

게 되었다(이창승, 2019, 247-251).

방언이 개신교 신학과 기도와 관련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난 1960년대이다. 1960년대에는 방언에 관한 몇 편의 기고문 또는 논문이 발표된다. 이 글들은 대부분 방언을 비판적인 어조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천의 주간(1962)은 방언을 하려면 오순절 때와 같이 외국어로 하라 주문하며 병 고치고 방언한다고 산에나 들로 따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연세대 문상희(1968)는 “완강한 샤머니즘의 정신 풍토 위에 서 있는 한국 교회에서 방언 운동은 저속한 혼합현상마저 노출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학자들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순복음 관련 교단의 성장 그리고 방언, 신유, 성령세례와 관련된 신학적 논쟁 등을 비판의 대상이 된 이유로 들고 있다(배본철, 2006, 93-96; 박명수, 2003, 240).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조용기 목사의 성령 운동은 대형 집회의 형태로 방언, 신유, 성령세례 등을 강조하며 확장된다. 이후 방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교단과 학자들의 글과 서적이 지속해 생산된다. 방언은 1970년대를 지나 1980년대까지 국내외의 부흥사들의 대규모 집회와 개체 교회의 부흥회를 통해 교단의 벽을 넘어 확장되어 간다. 그러나 많은 개신교 교단과 개체 교회는 방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고 방언을 용인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도 상당한 비율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현재 정확한 통계적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과거와 비교해 방언을 강조하는 개체 교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이다.

방언은 통성기도나 새벽기도와 다르게 언어와 관련된 요소와 기도가 통합된 결과이다. 통성기도는 기존 한국어를 통한 음성의 고조와 통합이 주된 특징이었고, 새벽기도는 시간의 변화와 강조가 특징이었다. 방언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특정한 소리를 내면서 하게 되는데 이 소리를 천사의 말이나 하늘의 언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 대부분은 통성기도의 형태로 방언을 하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통성기도나 새벽기도가 발생한 후 이들 기도가 개신교 부흥의 방법으로 가능한 것

처럼 방언도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다만 방언은 양적 성장과는 관련이 되나 질적으로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 논란이 있다. 이 기능을 중심으로 통성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에 공통으로 결합 되는 요소가 찬양, 금식, 치유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개신교 특유의 문화를 대변했던 기도원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한국식 기도원은 세계 교회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개신교 집회 공간으로 이름은 기도원이지만 방언, 통성기도, 찬양, 설교, 예배, 치유, 금식, 예언, 환상, 입신, 축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하여 있는 개신교 종합 훈련장이자 체험장의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기도의 흐름 다른 편에서는 목상이 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목상은 한국 개신교 초기부터 선교사나 목회자에 의해 행해졌지만 70년대 이전에는 대중화된 적은 없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한국 개신교 초기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에도 목상 기록이나 수필이 생산된 것으로 보서는 이미 그 전부터 목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실천하고 있었다고 짐작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명헌(1928)이 쓴 「주의 孤寂[고적]을 默想[목상]하며」를 비롯해 배신환(1936)의 「갯세마네의 默想[목상]」과 소천(1936)의 「默想餘筆[목상여필]」 등이 있다.

1962년 목상과 관련된 정기간행물인 「다락방」이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었다. 미국 감리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락방(The Upper Room)의 역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다락방이 처음 발간된 것은 1938년의 일이다(Mary L. Redding, 2009, 20-21). 대한기독교서회에 의하면 양주삼 감리교 총리사가 임영빈 목사와 함께 번역해 한글로 발행했다. 1941년 일제에 의해 발행이 중단되고 이후 발행과 중단이 반복된다. 1962년부터 대한기독교서회가 맡아 발행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다. 한국 성서유니온은 현재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매일 성경」을 1973년 시작하였다. 영국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선교사들이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교회에 질적 성장을 더 할 필요를 느껴 윤종하 총무와 함께 1972년 한

국성서유니온을 설립한다. 한국성서유니온은 설립과 함께 ‘성경읽기표’를 발행했는데 곧이어 이름을 「매일성경」으로 바꾸고 1973년에 「일반 매일성경」을 창간한다(최진봉, 2004, 171-198). 「생명의 삶」은 두란노서원에서 1985년 「생명의 양식」으로 시작해 1987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어 창간한 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제제자훈련원(사랑의 교회)은 「날마다 솟는 샘물」을 2005년 창간했다. 이 외에도 수십 종에 이르는 묵상집과 서적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1970년대를 시작으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묵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이 창간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신앙 서적이 출판되고 있다. 묵상집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화하여 보자면 한국 개신교의 묵상은 성경을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되새기고 삶에 적용할 점을 숙고하고 기도로 마무리된다.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통성기도의 음성 고조와 통합, 새벽기도의 시간 변화와 강조, 방언의 언어 변화와는 달리 한국적 묵상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에, 장소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이 혼자 또는 여럿이 행할 수 있다. 묵상은 보통 읽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문해를 요구하지만, 문해력이 부족해도 들을 수 있거나 손가락 감촉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혼자 배우고 익혀서 할 수 있다. 묵상이 1970년 이전에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공적 교육이 부족했던 현실과 문맹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묵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적용 또는 실천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통성기도, 새벽기도, 방언을 통한 실천을 강조할 때도 있지만 통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형태로 고착되었다면 묵상은 적용과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전에 발생한 기도의 형태와는 다른 요소와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묵상이 한국 개신교에 널리 소개되고 실천된다는 것과 한국 개신교의 묵상이 기독교 전통의 묵상과 같지 않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묵상에 대해서는 양적 성장의 기능이 강조되지 않는다. 성경과 간증을 연합한

형태로 가장 먼저 시작된 「다락방」과 성경 묵상의 형태로 가장 널리 보급된 「매일 성경」의 경우 특정 교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다. 두란노서원이나 국제제자훈련원이 은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들의 Q.T. 보급은 질적 성장에 관심을 두게 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통성기도나 방언과 결합하기 어려운 묵상은 본질상 음성을 포함한 소리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선호한다. 그래서 묵상은 새벽기도와 결합하기 수월하다. 새벽기도는 항상 통성기도나 방언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새벽기도 전이나 후로는 조용히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 알맞은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읽는 행위에 집중하고 읽은 후에 되새기는 과정에서도 다른 생각이나 소리는 묵상의 목적을 방해하게 된다. 묵상이 부르짖거나 하늘의 언어를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은 묵상이 확산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묵상은 이전의 기도 요소 중 소리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기도와 같은 혹은 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방언은 폭발적으로 개신교가 성장하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 무렵을 대표하는 기도의 요소였지만 은사를 받고 성령의 신비를 체험한 성도를 지속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용과 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체험과 신비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고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체험과 신비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신앙의 모든 부분에 최고의 해결책은 아니다. 묵상은 이전 혹은 동시대에 최고조에 이른 통성기도와 방언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적 욕구에 대한 반응이었고 해결책이었다. 묵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기도에 대한 욕구가 한국 개신교에 존재한다는 점은 2006년 설문에서 엿볼 수 있다(유해룡·이경영·손의성, 2010, 130-139). 한국 성도는 가장 집중이 잘되는 기도로 침묵 기도를 선택했다. 침묵 기도의 선택 비율은 47.3%로 30%에 못 미치는 통성기도를 넘었다. 더 배우고 싶은 기도 1위와 2위는 방언 기도와 찬양 기도이다. 3위가 큐티기도이고 다음으로 예수기도, 묵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통성기도 등 순이다. 한국 개신교의 전통적인 기도 외에도 비교적 새롭게 접하거나 아직 접해보지 못한 기도에 대한 욕구가 보이는 설문 결과이다.

묵상이 변해가는 기독교 시대와 세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널리 확산했지만, 한국 개신교가 행하고 있는 묵상은 초대교회에서 중세 교회로 이어져 온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와 관련이 없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렉시오 디비나는 읽기(Lectio), 묵상(Meditatio), 기도(Oratio)의 요소가 관상(Contemplatio)과 결합한 기도의 형태로 서방 수도 영성을 대표하는 영적 방법이다. 수도원 발생과 확산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묵상은 그 자체로 행해지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닌 거룩한 읽기 및 기도와 연합되고 연속되는 성경 말씀의 되새김이나 반복적 집중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의 경우와 다르게 관상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왔다. 한국 교회는 읽기와 기도(말하기)의 요소를 묵상(되새김과 숙고)의 요소와 함께 결합했지만, 관상을 묵상과 결합해야 하는 요소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관상을 소개하거나 장려하는 목회자나 신앙 서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한 이유일 수 있고, 한국 개신교의 기도 문화가 침묵이나 관상과는 상반되었던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묵상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로 지속했고 2000년대 들어 묵상과 관상이 함께 논의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가졌던 안식년 동안 미국 워싱턴 D.C.의 살렘 인스티튜트(Salem Institute for Spiritual Formation)를 통해 관상기도를 접하고 익혀 한국에서 적용하기 시작했다. 유해룡, 권명수, 오방식 등 학자가 저서와 논문으로 관상기도를 알리는 시기도 2000년대이다. 이동원 목사는 교계 특히 장로교 일부 교단과 목회자에게 비판을 받고 2009년부터 ‘관상기도 세미나’를 멈추었고 2011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동원 목사에 관한 내용은 온라인에 게재된 언론 기사에 기록이 남아있다. 크리스천투데이(김진영, 2011)와 코람데오닷컴(코닷, 2011)에서 이동원 목사의 입장문 전

문을 볼 수 있다. 이들 언론에 의하면 한국성경신학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예장합신총회 등은 관상기도를 불건전, 비성경적, 혼합종교적, 반종교개혁적 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성공회 선교훈련원 김홍일의 논문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논문에서 김홍일(2010)은 개혁전통의 교회가 통성기도나 묵상에는 익숙하지만, 관상기도는 낯설게 느끼고 있다고 표현한다. 2010년 이후로 묵상에 관한 연구는 관상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진다. 오윤선, 유해룡, 김수천, 권명수 등 학자들은 묵상과 관상의 관계나 개신교에서 관상기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천신학, 역사신학, 영성신학, 기독교교육 분야의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의 묵상이 그 자체로 기도의 요소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왔고 근래에 이르러 관상과 함께 논의되는 점은 한국적 묵상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에 있어 묵상과 관상에 대한 논의는 기독교 기도전통과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 사이 관계를 인식하고 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 4.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과 기독교교육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기도전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독교 교육적 의의를 고찰하고 앞으로 교회가 한국 개신교 전통의 기도와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기도는 교육해야 할 내용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방법 또는 능이자 교육의 목표이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에 대해 꾸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놓았다. 박종석(2005)은 기도의 내용, 방법, 목적 등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고, 채혁수(2016)는 동방기도 전통의 예수기도 적용을

기도뿐만 아니라 영성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김은주(2017)는 기도의 형태, 중간대상의 기능, 예전의 기능 등에 대해 논하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준다.

기도가 교육의 내용이라는 말은 기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정의, 역사, 종류, 방법, 이론 등이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도가 교육의 방법 또는 기능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성경, 교회, 신학, 예배, 사회, 사람, 자연, 세계 등의 내용이 구술되고 반복되고 전달되고 인식되는 과정이 있고 배움과 실천 그리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기도가 교육의 목표라는 점은 기독교 교회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고 기독교 신앙, 역사, 전통, 문화, 정서 등을 고려해 기독교 기도를 알고 고찰해 자신의 기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개인, 사회, 교회에 적합한 기도를 찾고 실천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사람으로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도전통의 변화를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 없이 발생하고 확장하여 정착된 부분과 교육을 통해 확산하고 정착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 한국 개신교에서 기도 자체는 분명 선교사를 통한 배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기도 자체의 발생은 교육의 영향이다. 하지만 이후 결합 된 부르짖음과 새벽 시간이라는 요소는 체계를 갖추어 선행했던 교육으로 발생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한정해 이를 분류하자면 비교육적 기도 요소와 교육적 기도 요소로 지칭할 수 있다. 초기에 한정한다는 것은 초기에는 비교육적이었던 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또는 현재는 교육적 요소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육적 요소의 발생에 교육적 의의가 전혀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부르짖음과 새벽이라는 요소가 교육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부르짖음 기도하거나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을 초기 선교사들이 지속해서 교육하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보다 한국 교회의 상황, 정서 그리고 신앙이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주기도문은 초기 개신교의 다른 기도와 비교해 교육과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비교육적 요소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려준다. 아펜젤러(1988)가 한국 감리교 최초의 한국어 설교를 했던 1887년 성탄절 예배의 일곱 번째 순서가 주기도문이었다. 통성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구여관의 커틀러 박사도 주기도문을 읽고 쓰도록 가르쳤다고 보고하고 있고,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한국 성도의 모습에서 감정의 고조가 있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또한, 앞서 봤듯이 1900년 감리교 연회 보고서가 전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에는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는 3년 차에 있지만, 주기도문은 1년 차에 포함되어 있다. 1975년 감리교 총리원 교육국에서 발행한 『한국감리교회사』는 1904년 노블(William A. Noble)이 번역한 세례 문답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14번째 질문에서 주기도문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기감총리원 교육국, 1975, 126). 무어(John Z. Moore, 1910)는 초기 한국 개신교 세례 준비자들이 암기해야 할 세례 교육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등에 앞서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한국 개신교에서 주기도문은 예배나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선교 초기에는 교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감리교단은 예배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초기부터 시작했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성결교단이나 장로교단의 경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배의 순서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박용규, 2012, 111-175; 한경국, 2019, 47-74; 허도화, 1999, 149-183). 허도화(1999)에 의하면 1945년부터 성결교단 예배에 주기도문이 들어간 것은 감리교회의 영향으로 보고, 장로교의 경우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주일 예배에 주기도문을 기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1970년 이후 회복한 것으로 본다. 박용규(2012) 역시 1930년대 장로교단 예배에 주의 기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박용규는 5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주요 교회 예배 순서와 주보를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로교단의 예배에는 주기도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장로교단은 선교 초기부터 주기도문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다. 릴리아스 언더우드(1904)의 글에는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한다. 여성들이 모여 사경회를 하고 주기도문과 찬양을 함께 하는 모습이 나오고, 많은 성도가 참석한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는 이야기 등이 등장한다. 또한, 주기도문의 한국어 발음을 표기해 놓기도 했다.

주님의 기도가 교육되고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의 부르짖음과 새벽 시간의 비교육적 요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교재나 교육과정을 통한 이론 교육과 체험이나 훈련을 통한 실습 교육 중 실습 교육을 더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는 이론과 실습이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개신교의 부르짖음과 새벽 시간의 요소는 이론과 실습 사이 균형을 맞추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두 요소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다른 상황이라 보기 힘들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서적이나 기도 교육 자료에서는 성경적 기원이나 기독교 역사 속 의미, 한국 교회의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상 교회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위에서 언급한 2006년의 설문 조사에서도 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 본 성도는 54.3%로 절반을 약간 넘기는 정도이다. 기도 교육 프로그램의 다수가 큐티, 제자훈련, 선교단체, 묵상 등과 관련된다는 점은 통성과 새벽의 요소가 교육적 요소로 인식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위해 교회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교육과 훈련으로 41.2%였고, 다음으로 체험의 시간이 21.6%였다. 묵상에 관한 연구에서 보았듯이 더 배우고 싶은 기도 순위에 통성기도는 9위이고 새벽기도는 선택지에 없어서인지 적게 선택된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15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는 기원, 역사, 적용 방법, 실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육적 요소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이론 교육의 내용에 적용할 수 있고 실습 교육으로 구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

단과 교회가 기도를 교육할 의지가 있다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계획을 통해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교육할 수 있다.

방언은 교육적 차원과 비교육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방언의 요소는 한국 개신교에서 도착적 형성 과정을 거쳤다가보다 당시 선교사의 선교와 방언을 강조하는 신학과 목회 방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언 요소의 교육적 차원이라는 의미는 방언 요소가 발생하는데 있어 방언을 교육하고 강조해 실천적 목표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비교육적 차원은 방언이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실습 또는 체험에 대한 강조로 인해 자연 발생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방언이 천사의 말이나 하늘의 언어라면 이 언어적 요소는 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배울 수 없기에 일부 개신교단과 개체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성령에 의탁해 가르쳐 왔다. 한국 여러 교단과 교회가 상당한 기간 강조하고 실천해 온 방언 기도가 앞서 본 설문의 결과처럼 더 배우고 싶은 기도의 1위를 차지한다는 점도 이를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방언은 앞으로도 기독교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려운 요소이다. 각 교단의 신학적 차이도 한 이유일 수 있지만, 일부 교단이 그러하듯이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점에서 기독교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범주에 넣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방언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여쭙어보는 것, 사모하고 구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것,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론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실현해 내기는 어렵다(김동수, 2008, 95-96; 이천수, 1999, 92-93; 임은종, 1981, 82; 조용기, 2005, 187).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옮기고 교재에 서술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교육 가능한 요소로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통성기도나 새벽기도와는 다르게 이론 교육으로 구현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습 교육은 개체 교회를 통해 지속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한 이론적 한계가 곧 실습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목상과 관상의 경우는 교육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목상은 교재나 자료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각 주체는 목상 이론과 실습 방법을 제공하고 지속해 교육한다. 예를 들어 「매일 성경」을 발행하는 한국성서유니온은 지부별로 주별, 월별, 계획과 요청에 따라 교육과 강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와 연구자료를 배포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목상과 성경에 관한 신앙 서적과 전문 신학 서적도 지속해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성서유니온과 같은 기관이나 단체가 한국적 목상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해왔더라도, 기독교 역사와 전통 속 목상과 한국적 목상의 관계를 설명하고 정립하는 일에 있어 아직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목상은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습 모두 비교적 잘 교육되어왔다. 앞으로도 목상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질 것이 예상되는 시점 이기에 목상에 관한 연구와 실험적 시도가 지속하기를 기대한다.

관상도 교육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동원 목사 이전에 당시 한신대 이금만(1999)은 “통전적 기도 교육론”이라는 논문에서 기도 방법으로 목상기도, 관상기도, 침묵 기도를 시편, 주기도, 예수기도 등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상기도를 구성하는 요소와 내용을 볼 때 교육 없이는 실천하기 어렵다. 감리교와 일부 장로교 등에서는 교단 차원 또는 개체 교회 차원에서 관상기도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관상기도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접하고 실천적 훈련을 받을 기회도 여러 주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교육은 목상과 관상의 차이나 관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해 한국 교회가 성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단별 신학적 차이에 의해 수용되지 못하더라도 관상기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이 생산되어야 한다. 수용하고 적용한다면 이론과 훈련이 균형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미 여러 학자와 목회자에 의해 시도되고 성공도 거두고 있지만, 서방 교회의 전통적 관상기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한국의 기도전통, 역사, 문화, 정서 등을 고려하고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관상기도를 적용할 때 교육적 분석이 이루어져야겠고 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III. 나오는 말

4세기에 주로 활동한 아프리카 출신인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와 논쟁한 정통 신학의 아버지이고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쓴 인물이다.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목록을 작성했고,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으로 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관리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Mother of God; Theotokos)로 부른 최초의 교부 중 한 명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도 아타나시우스처럼 아프리카 출신으로 고대와 중세 교회를 연결하는 인물이면서 개신교에서도 큰 영향을 받은 신학자이다. 그의 삶은 고백록을 통해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익숙하고 그의 신학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은총론,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도성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젊은 아우구스티누스는 마니교에 속한 적이 있었고, 회심한 이후 수도자로서 생활하기도 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인정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성경을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고 출판했다. 그는 실신한 천주교 사제이자 수도자였고, 종교개혁 후에도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지속했다.

아타나시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모두에게 존경받는 성인이거나 교부이다. 마틴 루터는 매해 종교개혁을 기념해 기억되고 있으며 그의 신학은 개신교에 있어 어떤 교단이든 끊임없이 논의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이들이 아프리카 출신이든 천주교 사제였든 마리아를 공경했던 간에 개신교 역사에 있어 이들의 신앙과 신학의 의의와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인물들이 하나의 신학적인 이유나 삶의 오점으로 인해 개신교 역사에서 지워지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면, 개신교의 역사에서 남

는 것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 한 권뿐일 것이다.

한국 개신교 전통의 기도 및 기도와 결합 된 요소, 기도 문화와 정서 등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군가에게 비판받지 않는 점이 없다. 흠을 찾고 오류를 밝히고 신학적으로 문제 삼으려 하면 어떤 기도든지 한국 개신교에서 지속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한국 교회가 맞고 있는 상황은 어쩌면 우리 개신교 성도 모두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 때문일지 모른다. 이제는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재고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해 온 우리의 기도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내고 공고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라고 외친다. 교회, 목회자, 성도는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하루가 멀다고 교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며, 목회자는 권위와 의욕을 잃어간다. 믿음은 단지 교회를 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초기 성도들은 기독교 초기 성도들처럼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돌보며 교회와 세상에서 희생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겸손했다. 존스(George H. Jones, 1910) 선교사가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지 하나의 예를 들려준다. 어느 날 한 선교사에게 어떤 성도가 와서 주님의 산상설교를 한번의 실수도 없이 모두 외웠다. 선교사는 외우기만 하는 것은 유익이 없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성도는 자신이 그렇게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사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성도가 하는 말이 그는 한 구절을 외우고 그 구절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나가서 이웃에게 실천하고 다시 한 절을 외우고 또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는 이 성도를 겸손한 한국 성도(Humble Korean Christian)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기독교의 놀라운 성공(Success)에 대한 힌트(Hint)를 바로 이 성도가 준다고 적어 놓았다. 기도를 아무리 교육하고 실천하게 해도 삶에서 그 기도한 내용이 사랑, 헌신, 희생, 나눔, 겸손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존스 선교사의 이야기 속 그 성도가 경험한 한국 교회가 현재 우리의 현실

속 교회로 재현될 것이라 꿈꾸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기 기독교교육의 방향에 대한 한가지 힌트도 이 성도의 이야기 속에 있을지 모른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한국 개신교의 기도가 더 견고하고도 유연한 역사를 지속하기를 기대하며 연구를 마친다.

## 참 고 문 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 서울: 두산동아.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07). *Traditional reflection on sky, time, and earth*. Seoul: Dusan-donga.]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75). **한국감리교회사**. 서울: 총리원교육국.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1975). *History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Seoul: DEKMC.]
- 김동수 (2008).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 서울: 도서출판 이레서원.  
[Kim, D. S. (2008). *Speaking in tongues, precious heavenly languages*. Seoul: Ereseowon.]
- 김명실 (2010). 공동체적 탄원기도로서의 통성기도. **신학과 실천**, 24, 299-335.  
[Kim, M. S. (2010). Tongsunggido as a communal lament prayer. *Theology and Praxis*, 24, 299-335.]
- 김은주 (2017). 기도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50, 291-318.  
[Kim, E. J. (2017). The Christian pedagogical approach to prayer.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299-335.]
- 김진영 (2011. 7. 6.). 이동원 목사, 관상기도 세미나 하지 않겠다. **크리스찬 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8176>, 추출일: 2021. 10. 23.
- [Kim, J. Y. (2011. 7. 6.). Rev. Lee says, he would not hold a contemplative prayer seminar. *Christian Today*.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248176>, Accessed: 2021. 10. 23.]
- 김홍일 (2010). 개혁전통에서 본 관상기도에 관한 연구. **신학연구**, 57, 132-134.  
[Kim, H. I. (2010). A study of contemplative prayer in view of protestant church tradition. *Theological Studies*, 57, 132-168.]
- 문상희 (1968). 신약성서의 방언 현상. **신학논단**, 9-10, 79-97.  
[Moon, S. H. (1968). Speaking in tongues in the new testament. *Theological Forum*, 9-10, 79-97.]
- 박명수 (2003). **한국교회 부흥운동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Park, M. S. (2003). *A study on the revival movement in the Korean church*. Seoul: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 박아론 (2010). **새벽기도 이야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Park, A. R. (2010). *The story of early morning prayer*. Seoul: Christian Literature Center.]
- 박아론·안재도 (2021). **새벽기도 신학과 새벽기도 영성**. 서울: 콤란출판사.
- [Park, A. R. & Ahn, J. D. (2021). *The Korean Christian theology and spirituality of early morning prayer*. Seoul: Qumran Publishing.]
- 박용규 (2012). 한국교회 예배의 변천, 역사적 고찰. **성경과 신학**, 63, 111-175.
- [Park, Y. K. (2012). An historical study on the worship transition of the Korean church. *Bible and Theology*, 63, 111-175.]
- 박종석 (2005). 기독교교육의 본성을 찾아서: 기도의 교육. **신학과 선교** 31, 1-14.
- [Park, J. S. (2005). Searching for essentials to Christian education: Prayer and education. *Theology and Education*, 31, 1-14.]
- 배본철 (2006). 방언; 한국 기독교 속의 역사적 개관. **성경과 신학**, 39, 87-105.
- [Bay, B. J. (2006). Glossolalia; its historical survey in Korean Christianity. *Bible and Theology*, 39, 87-105.]
- 배신환 (1936). 겟세마네의 묵상. **활천**, 160, 130-134.
- [Bae, S. H. (1936). Gethsemane meditation. *The Living Waters*, 160, 130-134.]
- 배정도 (2009). 개혁 교회와 한국 교회의 기도신학에 관한 연구. **기독교철학**, 8, 199-223.
- [Bae, J. D. (2009). A study on prayer theology in the reformed church and the Korean church. *Journal of Christian Philosophy*, 8, 199-223.]
- 소천 (1936). 묵想餘筆. **활천**, 169, 643-644.
- [So, Cheon (1936). Meditative essay. *The Living Waters*, 169, 643-644.]
- 아펜젤러 (1988). **자유와 빛을 주소서: H. G. 아펜젤러의 일기**. 노종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Appenzeller, H. G. (1988). Bring to the light and liberty: Appenzeller's diaries.

Translator: Noh, J. 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오선실 (2020). 1910-30년대 조선총독부의 전력정책과 식민지 기술관료들의 조선개발 인식. **인문과학연구논총**, 4-1, 163-192.

[Oh, S. S. (2020). Electricity control policy and technocrat's development plan in the governemnt-general of Korea, 1910-30s. *The Journal of Humanities*, 41-1, 163-192.]

옥성득 (2006).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57-95.

[Oak, S. D. (2006). Spiritual seismic shifts among the daoist-Christians in pyongyang: Kil sun-ju's daoist-evangelical spirituality during the great revival movement.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 25, 57-95.

옥성득 (2016). **다시 쓰는 초대 한국교회사**. 서울: 새물결플러스.

[Oak, S. D. (2016). *A new history of early korean protestantism*. Seoul: New Wave Plus.]

유혜룡·이경영·손의성 (2010).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 생활 연구. **기독교와 영성**.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You, H. Y. & Lee, G. Y. & Son, E. S. (2010). A research on prayer life of korean Christian, from *Christianity and Spirituality*. Seoul: Duranno Academy.]

윤은석 (2018). 초기 개신교 내한 선교사들의 한국 무속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51, 181-221.

[Yun, E. S. (2018). A understanding on korean shamanism of early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From 1884 to 1910. *The Church History Society in Korea*, 51, 181-221.]

윤은석 (2018). 1910-1930년 한국 개신교의 새벽기도의 발전과정 연구. **성결교회와 신학**, 51, 181-221.

[Yun, E. S. (2018). 1910s-1930s Development of early morning prayer in

- korean protestantism. *Holiness Church and Theology*, 51, 181-221.]
- 이덕주 (2005).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 토착신학에 대한 역사신학적 접근.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8, 35-70.
- [Lee, D. J. (2005). Early korean indigenous church formation and religious culture-historical theological approach to indigenous theology. *Collection of Papers of the Society for Korean Cultural Theology* 8, 35-70.]
- 이덕주 (1998).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전통. **세계의 신학**, 38, 107-119
- [Lee, D. J. (1998). Tradition of early morning prayer meeting. *Theology of the World*, 38, 107-119.]
- 이대근 (2014). **무교와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종교사상사**. 서울: 가톨릭출판사.
- [Lee, D. G. (2014). *History of korean religious thou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shamanism and Christianity*. Seoul: Catholic Book.
- 이명직 (1930). 聖神을 맞으면 方言을 하나뇨. **활천**, 97, 2-3.
- [Lee, M. J. (1930). The Holy Spirit and speaking in tongues. *The Living Waters*, 97, 2-3.]
- 이명헌 (1928). 主의 孤寂을 默想하며. **활천**, 65, 123-126.
- [Lee, M. H. (1928). Meditation on the Lord's loneliness. *The Living Waters*, 65, 123-126.]
- 이말테 (2012). 한국개신교회의 새벽기도의 초기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1, 183-225.
- [Rhinow, M. (2012). Research on the beginnings of early morning prayer i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Theology and Praxis*, 31, 183-225.]
- 이말테 (2014). 18-19세기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39, 141-171.
- [Rhinow, M. (2014). Early morning prayers in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during the 18/19th century. *Theology and Praxis*, 239, 141-171.]
- 이천수 (1999). **방언의 이해와 유의**. 인천: 영성목회.

- [Lee, C. S. (1999). *Understanding of glossolalia and its benefits*. Incheon: Spiritual Ministry.]
- 이창승 (2019). 오순절적 '순복음(純福音, Full Gospel)'의 기원, 역사와 의미. **영산신학저널**, 47, 219-272.
- [Lee, C. S. (2019). The origin, history, and meaning of pentecostal full gospel andn sunbogeum. *Journal of Youngsan Theology*, 47, 219-272.]
- 임은중 (1981). **기도하는 법**. 서울: 목회자료사.
- [Im, E. J. (1981). *How to pray*. Seoul: Ministry Resource Publishing.]
- 조성호 (2020). 통성기도에 관한 실천신학적 연구. **신학과 실천**, 72, 251-280.
- {Cho, S. H. (2020). A study of vocal prayer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72, 251-280.}
- 조용기 (2005).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서울: 서울말씀사.
- [Cho, Y. G. (2005). *Prayer, key to the revival*. Seoul: Seoul Book.]
- 채혁수 (2016). 예수기도의 영성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51, 243-271.
- [Chae, H. S. (2016). A study on the Jesus prayer's application to spiritual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1, 243-271.]
- 최진봉 (2014). 개인과 교회를 위한 매일 성경 읽기로서의 말씀 묵상집(QT)와 매일 성구집(Lectionary)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 171-198.
- [Choi, J. B. (2014). A study of daily meditation (Q.T.) and daily lectionary as daily bible readings for individuals and church. *Theology and Praxis*, 42, 171-198.]
- 코닷 (2011. 7. 5). 이동원 목사, 관상기도 세미나 접했다. **코람데오닷컴**,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1>, 추출일: 2021.10. 23.
- [Codot. (2011. 7. 5.) Rev. Lee, closing contemplative prayer seminar. *kscoramdeo.com*,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1>,

Accessed: 2021.10. 23.]

한경국 (2019).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작을 중심으로 본 초기 한국 장로교 예배 이해. **신학과 실천**, 66, 47-74.

[Han, K. K. (2019). An understanding of the early korean presbyterian worship through the writings of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Theology and Praxis*, 66, 47-74.

허도화 (1999). 초기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 - 주일 낮 예배를 중심으로. **성결교회와 신학**, 3, 149-183.

[Huh, D. W. (1999). Worship of the early korean holiness church - centered on sunday morning service. *Holiness Church and Theology*, 3, 149-183.]

활천주간 (1963). 방언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자. **활천**, 318, 1-3.

[Editor of the Living Waters. (1963). A good understanding of glossolalia. *The Living Waters*, 318, 1-3.]

Appenzeller, Henry G. (1902)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Open Door Emergency Commission.

Gale, J. S. (1909).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Educational Department of the BFMP.

Gale, J. S. (1898). *Korean sketch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Gifford, D. L. (1898) *Every-day life in korea: A collection of studies and stories*. Chicago: Fleming H. Revell Company.

Jones, G. H. (1910).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ew York: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C.

Korea Mission/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0). *Official minutes of the sixteenth annual meeting, Seoul 1900*.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Moore, J. Z. (1910) *How kuibum, youngpokie, and the tiger helped to evangelize the village*. New York: MEC Korea Quarter-Centennial

Commission.

Paik, L. J. (1927).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Yal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Parsons, E. C. (1900). *Fifteen years in the Korea mission*. New York: The Willett Press.

Redding, M. L. (2009). *Where the world meets to pray*. Nashville: Upper Room Books.

Underwood, H. G. (1908).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Underwood, L. H. (1918). *Underwood of korea*.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Underwood, L. H. (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American Tract Society,

---

Abstract

---

##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s and Christian Education

Jingu Kwon

Assistant Professor, Mokwon University

After Protestant missionaries delivered the gospel to Korea in the 1880s, Korean Protestantism has pursued qualitative growth following quantitative growth. Pastors and scholars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for qualitative growth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ology, ministry, social participation, ethics, education, counseling, history, and spirituality. Prayer has been a significant spiritual resource and method in the history and for the faith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Histor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on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s has been continuously performed, and it is time to re-establish and renew the prayer traditions for the new generation and context of the Protestant churches. In this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s and describe their significance for the change of Korean Protestantism and its prayer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in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In addition, it analyzes the cause and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a specific prayer element in Korean Protestantism and describes the relationship with the topics currently being emerged. Through the research on the prayer traditions, this study reflects on the meaning of the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 to Christian education and discusses the content, method, and purpose of future education in relation to Korean Protestant prayer. This study argues that prayer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history and tradition as a whole with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rotestant prayer traditions and the educational and non-educational elements of prayer.

《 **Keywords** 》

Korean Protestantism, Prayer, Tosung-Kido, Meditation, Christia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2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2월 30일